2022베이징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헌(왼쪽)과 최민정(오른쪽)이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너시스BBQ '치킨연금' 행복 전달식에서 치킨 연금 메달을 수상한 뒤 윤홍근 BBQ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베이징 金' 최민정·황대헌에 치킨 연금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최민정(23·성남시청), 황대헌(22·강원도청)이 만 60세까지 공짜로 '1일1닭'을 먹을 수 있는 '치킨 연금'을 받았다.

제네시스 BBQ 그룹(회장 윤홍근)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치킨연금 행복전달식'을 개최하고 황대헌에게 38년간, 최민정에게 37년간 매월 혹은 매 분기 초에 매일 3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멤버십 포인트로 수여했다. 두 선수는 약 4억원 수준의 쿠폰을 받게 된다. 향후 포인트 조절에 따라 총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도 치킨 연금을 받는다. 차민규, 서휘민, 이유빈, 김아랑, 이준서, 곽윤기, 박장혁, 김동욱, 정재원 등 9명의 은메달리스트와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멤버로 참가한 박지윤 선수도 주 2회 20년간 치킨 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김민석, 이승훈 선수는 주 2회 10년간 치킨연금을, 빙상종목을 제외한 동계올림픽 5개 종목 각 협회에서 추천한 1명씩 5명의 국가대표 선수는 격려상으로 주 2회 1년간 치킨을 무료로 먹을 수 있게 됐다.

치킨연금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으로 재임 중인 윤홍근 BBQ 회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국민에게 희망·기쁨을 선사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평생 치킨 이용권이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대한산악연맹, 전국 60개 봉우리 동시 등정

대한산악연맹이 23일 정오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전국 17개 시·도 60개 봉우리를 동시 등정한다.

이번 등정은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서 최북단 설악산 대청봉, 최동단 울릉도 성인봉과 독도망양대 등 전국 17개 시·도 연맹과 산하단체가 선정한 60개 봉우리에서 동시에 등정할 계획이다.

등반 시에는 '안전산행 캠페인'을 진행하며 하산할 때는 주변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클린산행 캠페인'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대한산악연맹 손중호 회장과 스포츠클라이밍 여제 김자인, 대한산악연맹 소속 산악인들은 인수봉 정상에 올라 대한산악연맹 창립 60주년 엠블럼 깃발을 흔들며 자축했다.

대한산악연맹은 1962년 4월23일 창립해 국내외 각종 산악활동과 산악스포츠(스포츠클라이밍, 아이스클라이밍, 산악스키, 트레일러닝, 노르딕워킹), 생활체육 등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양현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조코비치 "러 선수 출전 금지는 미친 결정"

조코비치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 선수의 윔블던 테니스 대회 출전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친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세르비아 오픈에 출전 중인 조코비치는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선수들의 출전을 막은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조코비치는 "어린 시절 전쟁을 경험해 전쟁을 지지하지 않지만 운동선수들은 전쟁과 무관하다. 정치가 스포츠를 방해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 윔블던의 출전금지 결정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남자 세계 2위이자 지난해 US오픈 우승자인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와 여자 4위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 등 톱 랭커들이 나올 수 없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 개막…62개국 선수단 참가

도전·환희·감동…"태권도로 우리는 하나"

1000여 명 36개 종목서 자웅 겨뤄
15년만에 종주국 한국 개최 큰 의미
첫 金 주인공은 여자단체전 한국팀
우크라 가족 "고국에 용기주려 출전"
AG 金 강완진·곽여원 오늘 메달 도전

종주국에서 15년 만에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펼쳐진다. 21일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막을 올린 이번 대회는 62개국에서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24일까지 열린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해 출전한 다비드 가브릴로프-예바 가브릴로바 남매(위 사진)의 21일 품새 경기는 대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진제공 | 고양시

우렁찬 기합에는 승리를 향한 의지만큼이나 평화를 열망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해제 이후 치러진 첫 국내 개최 국제대회인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 62개국 1000여 명의 선수단이 36개 종목에 걸쳐 자웅을 겨뤘다.

21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막을 올린 이번 대회는 15년 만에 종주국 한국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대회장에선 총 5개 코트가 운영돼 시작부터 뜨거운 열기가 뿜어졌다.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직전 대회인 2018년 대만대회에선 3개 코트로 경기를 운영했는데, 이번 대회는 종주국인 한국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큰 행사인데다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5개 코트에서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회 첫 금메달은 역시나 한국의 몫이었다. 공인품새 30세 이상 여자단체전에 참가한 최영실(34·경희대보람태권도장), 김미현(36·한국체대중평태권도장), 장명진(33·지인회태권도장)이 스페인과 멕시코를 각각 7.36점-6.75점, 7.27점-6.4점으로 가볍게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선 미국을 7.52점-7.2점으로 누르고 종주국의 위엄을 과시했다.

이어 공인품새 65세 이하 여자개인전에선 바바라 브랜드(미국)가 베라 모엔스(벨기에)와 쉘리 바에르트(캐나다)를 따돌리고 대회 2번째이자 이날 마지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22일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남자 품새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강완진(23·도복소리태권도장)과 여자 품새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곽여원(28·강화군청)이 각각 공인품새 30세 이하 남자개인전과 자유품새 17세 이상 여자단체전에 출격해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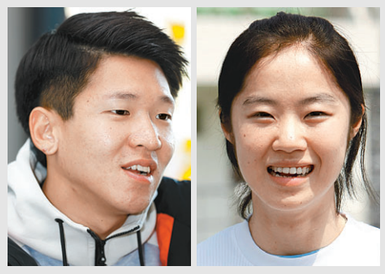
한편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태권도 가족' 루슬란 가브릴로프(42), 다비드 가브릴로프(13), 예바 가브릴로바(12·이상 우크라이나)의 기자회견도 눈길을 끌었다.

다비드-예바 남매는 러시아의 침공에 신음하는 고국의 동포들에게 용기를 주고 세계무대에서 역량을 펼쳐보고자 이번 대회 공인품새 카뎃(12~14세) 남녀 개인전에 각기 출전한다.

고양 |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육상 베테랑' 김국영·임은지 "어쩌면 마지막 AG…후회 없이 준비"

김국영 부상에도 전국선수권 제패
남자 100m 한국新 자체 경신 도전
임은지도 여자 장대높이뛰기 정상
3연속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 목표



김국영 임은지

"2022항저우아시안게임이 선수로서 마지막 아시안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항저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일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남자 100m 김국영(31·광주광역시청)과 여자 장대높이뛰기 임은지(33·영주시청)는 9월 항저우행에 청신호를 밝힌 뒤 자신에 찬 어조로 아시안게임 출전 열망을 전했다.

남자 100m 한국기록(10초07) 보유자인 김국영과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2연속 동메달을 수확한 임은지는 한국육상에서 지난 10년간 최강자로 군림해온 베테랑들이다. 그러나 두 선수는 지난 수년간 부상에 시달리며 부침을 겪었고, 유종의 미 그 이상을 이루고자 9월 아시안게임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록 추이는 나쁘지 않지만, 컨디션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김국영은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19·안산시청)에 0.02초 앞선 10초42의 기록으로 우승했으나, 자신의 한국기록은 물론 3월 여수 전국실업육상연맹선수권대회 당시의 기록 10초33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은지도 4m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지만, 개인최고기록 4m35는 물론 아시안게임 2연속 동메달 당시의 기록 4m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국영은 3월 여수대회 당시 허벅지 부상, 임은지는 지난해 상반기 오른쪽 발목과 종아리 부상을 앓은 탓이 컸다.

그러나 아시안게임까지 5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어 기록을 향상시킬 여지는 남아있다. 두 선수 모두 수년째 개인최고기록을 경신하지 못한 터라 어느 때보다 동기부여도 크다.

김국영은 "3월에 부상을 입었지만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면 아시안게임에 나갈 수 없어 출전을 강행했다. 5년 동안 개인기록을 경신하지 못했고 훈련 부족 여파도 느끼지만, 아시안게임을 향한 열망이 강하다"며 "올해 60m 대회에 참가했는데 스타트가 장점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60m 선수들과 겨뤄보니 오히려 느린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법을 바꾸기도 했다. 몸 관리를 잘해 마지막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은지도 "아직 항저우행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남은 5개월 동안 절실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개인기록이 2009년에 멈춰있는 점도 아쉽고, 몸 상태도 한창 좋았을 때와 비교하면 50% 수준이지만 아시안게임 시즌마다 호성적이 나온다는 점은 호재"라며 "2017년 모친상 이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부모님의 젊었을 적 사진을 왼쪽 어깨에 타투로 새겼다. 어머니와 함께 달린다고 생각하며 아시안게임 출전과 한국기록 경신에 꼭 도전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